

순창청년 로망시험포 1년간의 기록

순창형 청년협업농장의 첫발자국
2018년 2월 19일~11월 30일

순창귀농귀촌지원센터
김현희 청년팀장



전국귀농운동본부 순창군귀농귀촌지원센터

- 2013년부터 순창군에 위탁시작, 올해로 6년차
- 지역형 정착모델 및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구조 만들기
- 1박2일, 3박4일 등의 단기 체험 교육
- 집수리, 적정기술, 장담그기 등의 기술교육
- 4~6주간의 장기합숙 교육 등
- 지역에 좋은 귀농자들을 정착 시키는데 주력

청년귀농교육의 문제점

- 일반적으로 귀농자에게 요구되는 것 ‘자본과 기술’
-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던 3무(無)청년들의 정착실패
- 각자도생의 방식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청년 정착
- 청년창업등의 후속교육을 만들어도, 참여할 청년 층 자체가 적음
- 불안한 거주지, 농촌 경험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
- 순창의 상황에 맞춘 청년정착플랫폼 요구

순창형 청년교육농장의 초기 구상

- 2017년 센터에서 구림의 하우스를 임대
- 지역 1~3년차 청년귀농자들의 협업농장 형태 구상,
그러나 지역 청년들의 참여 부재
- 9월부터 장기합숙 교육 이후 순창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3명이 '떼
촌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3개월간 하우스를 관리함
- 청년장기교육농장 사업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멤버를 물색



홍성 선진지 견학 (feat 지역진흥재단의 청년희망뿌리단)



홍성 청년협업농장의 사례가 순창의 사례가 될 수 있을까??



순창은 홍성만큼 지역 인프라 및 가용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만큼 비슷한 운영 내용으로는 청년들을 유인하기 힘들 것이다.

순창형 청년교육농장의 초기 구상

안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전농사교육
'실질적인 소득 및 농창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 '

VS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농업 및 농촌경험을 제공해주는 중간다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직접 농촌을 경험하고 앞길을 선택하도록 돕는데 의의' (gap year)

담당자의 성향과 모집된 청년들의 성향에 따라 후자 쪽에 집중

순창형 청년교육농장의 시작

- 지원사업 내용의 변화, 그럼에도 떼촌에서 2명의 청년이 지원 (다른 청년은 귀촌으로 방향을 잡고 지역에 정착)
- 3명의 청년은 2018년 2월부터 새롭게 모집
- 2월 19일부터 공식 일정 시작 5인 체제는 4월 초부터
- 청년들 4명이 모였을 때 각자의 로망을 실현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순창청년로망시험포'라는 이름을 붙임



교육추진방향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농사 계획을 세우고 운영

- 일 4시간의 실습 및 4시간의 교육으로 구성
- 농사 일정 및 작부체계 등은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
- 생산부터 판매까지 기간 동안 청년들이 전담

◆지역내에서 제공되는 교육 및 모임 적극 참여

- 지역 초보 귀농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
- 지역 동아리, 문화강좌 등에도 참여

◆지역 정착을 위한 각자만의 방법 찾기

- 개인 연구과제 등을 설정해 각자의 관심사와 전공을 살린 지역 정착 계획 수립

초보들에게 실전농사란?

5월 21일 정기회의

시간: 12:20~15:00 / 참석자: 머니, 영은, 환택, 유성, 지은, 윤영 / 장소: 대정폭대기집

안전

0. 소소한 근황

한주 일정 계획

5월 21일(월): 토마토 방제, 청결제 제조, 토마토 아래 걸순따며 제조, 2,3,4 등 들주기

mbc경제매거진 촬영 28일 이전에 방송예정

5월 22일(화): 부처님오신날, 윤영, 영은, 환택 한조

5월 23일(수): 사과참외 손따기, 오이 한번 봐주기, 고추방제,

5월 24일(목): 액비짜꺼기 애들에게 주기, 사과참외, 손따기

1시~3시 이전전 대표님 귀농귀촌 강의

5월 25일(금): 대정소 수확 후 작업 가능하게 공간 만들기

5월 26일(토): 당면 (창업팀 교육)

5월 27일(일): 당면

5월 28일(월): 하우스 일반 관리작업 or틀계발 관리

-----그의 미리 알고있어야하는 일정-----

5월 30일 (수) - 창업팀 완주 선진지 견학

5월 31일(목) - 농정원 실사

6월 9~10일 (토~일) - 청년학교 예상

6월 13일 - 지방선거 (알바하실분들 참고)

6월 14일 (목) - 창업교육 포장과 디자인

-수정법이 영 일을 시원치않게 하는 것 같음

-양봉 벌 내검 필요

-나방 애벌레, 응애 등이 난립하고 있다. 고추등이 가장 심각함. 방제 필요

-자달오일, 우황 제조 실패 (천일염 1.5kg, 연수기 필요, 소장님 기술센터, 우영님 문의)

-고추등 자달오일 방제를 저복에 하는것도 고려

-닭은 30마리 정도 주문

-쓰레기봉투 대충량

-이선형

선생님께 산란상자

-편당 빨리

-일정 조정의 건, 이번주 집수리 수업때 경험해보고 결정해보기 : 일단 안하기로

-아침 6시에 일어나는것도 5월은 일단 두고보기

-중간정산 한번 해야된다 = 기름값 시급

-환택 : 영상미디어 강의가 있다.

-센터에서 한번 같이 맛있는 식사하자고 하십니다. 6월에 회 먹기르



너무 많은 농사 욕심과 계획 1

- 하우스 농사

- 블루베리 1동 = 전정을 통해 일부 수확해서 직거래로 팔
- 토종고추 1동 = 더위에 많이 타죽었고 관리 소홀 등으로 거의 수확하지 못함, 직거래로 일부 팔고 나머지는 고춧가루로 나눠가짐
- 방울토마토, 가을김장채소 = 방울토마토는 초기에 습도관리 실패로 잎곰팡이 병이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리했음. 수확량은 정상 하우스보다 많이 적었음. 직거래와 학교급식 등으로 150박스 정도 판매, 나머지는 즙을 2000포 가량 내서 판매하고 나눠가짐. 김장채소는 일부 소소하게 팔고 나눠가짐
- 토종작물 1동 - 각자의 개인발과, 토종오이, 사과참외, 순창 뽕가지를 심었음. 꾸러미 품목으로 대부분 들어감. 토종오이는 흰가루병 등으로 수확을 제대로 못했으나 사과참외의 경우 많은 수확을 거둠.

너무 많은 농사욕심과 계획 2

- 노지밭 5000평

- 군유지를 임차. 하우스와 많이 떨어져 있어 자주 방문 어려움
매실나무와 감나무가 있음
- 트렉터로 갈아 3월에 부랴부랴 금강밀을 2000평 가량 파종했음
- 600kg 가량의 수확을 거둠. 밀로도 팔고 밀가루로 가공해서도 팔
- 매실은 전정 및 관리를 못했으나 제법 따서 매실청을 담금.
가공해서 꾸러미 품목 및 직거래로 팔고, 나눠가짐
- 대봉 나무가 있어 각자 먹고 저장할 만큼 따서 나눠가짐
- 하반기 작목으로 콩을 심었으나 그 후 한달간 비가 오지 않음.
수확할 게 없었음

너무 많은 농사욕심과 계획3

- 논농사

채종목적으로 한 마지기에 토종벼를 짓는 지역 귀농인분과 논농사를 함께함. 못자리 내기서부터 모내기, 피사리, 수확 및 탈곡작업에 참여

- 양봉, 양계

-양봉 한통을 사서 관리. 약군을 사서 꿀은 많이 모으지 못함. 조금씩 맛만 봄. 이후 토종하우스에서 수정벌 역할을 담당. 다들 지쳐서 많이 열어보지 못함.

-양계는 수업도 듣고, 구입처 및 입식장소까지 마련했으나, 도저히 감당이 어려울 것 같다는 회의 끝에 하지 않기로 결정



9월 꾸러미 구성품



쌀 밭 농사의 1년 과정을 담았어요

1. 금강밀 1.5kg / 밀기울 700g : 동계 노지밭에 방치하듯 약도, 비료도 안주고 키운 우리밀입니다. 7월 꾸러미에는 통밀로 나왔었지요. 그걸 산청까지 가서 제분해왔어요. 금강밀은 글루텐이 많게 개량된 토종이라 베이킹 등에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초여름에 수확해 햇빛으로만 말렸는데, 누제비 등을 해먹어 보니 맛이 없네요. 밀기울은 밀의 겉부분인데 영양소도 더 많고 그래서 쿠키 등을 해먹거나, 누룩 된장의 원료로 사용해요. 받은 밀에 1/10을 더 하면 통밀이 되요.
2. 고춧가루 500g : 수비토, 빵빵이초, 순창초, 칠성초, 청랑고추, 일반고추 등 약 5~6가지의 품종에서 고루 수확한 고춧가루입니다. 햇빛으로만 말렸구요. 약이나 비료를 일절 하지 않았어요. 순창고추의 경우 손톱만하게 열려서 파고 말리고 꼭지파고 하는 게 일반고추의 몇 배의 손이 가는데 맛이 좋다는 이유로 올해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어린 도전은 다신 안하겠지요^^;;





청년들이 가장 만족했던 것



1년을 살아도 어려운 빈집찾기



2명의 청년은 순창 내 빈집 5년 계약, 1명은 남원의 전세 계약,
2명의 청년은 여전히 순창에서 빈집을 보러 다니는 중.

최종 수익 35만원

수입	
판매금	7,666,542
후원금	50,000
알바수입	841,200
기타수입	1,030
예금이자수입	30
수입합계	8,558,802

※농정원 사업비로 재료비 500만원, 숙박, 식비 (1인당 한달 약 30만원) 사용

지출	
택배비	603,470
알바비	700,000
주유비	1,357,160
차량유지비	1,800,000
차량수리비	100,000
여행비	392,800
재료비	923,680
식대, 간식비	342,000
지출합계	6,219,110
잔액	2,339,692

청년들의 선택

- 농사를 계속 짓고싶지만 전업농으로서의 자신은 없다.
하우스 농사 희망자 0%
- 그러나 농촌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다.
- 지역내 영농법인,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소득사업시험포 등에 취업할 예정

각자가 꿈꾸던 농촌 로망

- ‘자연과 함께하는 삶’, ‘마당에서 햇빛에 이불을 널어 말리기’
‘제대로 한해 농사 지어보기’, ‘반농반X’, ‘오전 4시간 일하고 놀기’
‘주변 자연을 보며 일상의 즐거움 느끼기’,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 ‘직접 동물을 길어서 먹먹먹’, ‘소비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급자족하기’, ‘도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 ‘안해본 요리 해보기’, ‘장담그기’, ‘죽공예해서 돈벌기’, ‘하루 4시간 농사로 한달 30만원 벌기’
- 자립, 자급, 온전한 삶, 여유로운 삶의 형태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안전공간
그러면서 로망과 현실과의 동떨어짐을 인정하고 농촌에서의 삶의 형태를 현실적으로 다시금 구상해볼 수 있는 기회
- 로망이 다시 현실로

내년에도 순창에서 협업농장을 한다면

1. 좀 더 느슨하게 혹은 좀 더 실전지향으로

-확실한 방향설정과 그에 따른 운영방식의 차이를 둘 필요

2. 기본소득 없이 청년들이 농장 운영만으로 돈을 벌기란 어려움

-생계 유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유인책이 없음

3. 담당자의 에너지 고갈 문제

-전문성 있는 농사멘토가 좀더 농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내년에도 순창에서 협업농장을 한다면

4. 멘토멘티 사업, 농업법인 취업, 농어촌 청년일자리 정책 등과 비교했을 때 청년협업농장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 돈을 벌거나 기술을 배운다고 봤을 때는 경쟁력이 없음
- 자율성, 주체성, 관계성에서 얻어지는 경험
- 단순 사업 대상자로서가 아닌 농촌을 살아보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연대로 봤을 때는 지역에도, 개인에게도 매력적.



감사합니다